

측근들의 '회고록'에 시달리는 레이건

현직 대통령의 虛像 파헤쳐……아들·딸도 한몫

지금까지 8권…모두가 비판적

루스벨트대통령 이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레이건 미국대통령이, 전직보좌관들과 행정부 관리들이 끊임없이 내놓고 있는 회고록 파문에 휘말려 연일 국내의 신문지상의 화제가 되고 있다.

국가 최고지도자의 뒷이야기들을 파헤친 폭로성 출판물의 발간은 동서양의 구별없이 늘 있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레이건측근들의 회고록은 물량적으로 그 유래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레이건의 대통령으로서의 능력과 인간적인 면모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온 책들은 모두 8권. 1984년 전 국무장관 알렉산더 헤이그가 「Caveat」를 발표하여 워싱턴 정가에 파문을 일으킨 것을 필두로, 1986년에는 예산국장이었던 데이비드 스토크맨이 「The Triumph of Politics」를, 1986년에는 친딸인 패티 데이비스가 「Home Front」를 발표했고, 1987년에는 레이건부부의 가장 가까운 친지로 자타가 공인하는 전 백악관 보좌관 마이클 디버가 「Behind the Scene」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실상과 허상을 신랄하게 고발했다.

1988년에 들어서만도 네권의 책이 출간됐는데 친아들 마이클 레이건의 「On the Outside Look in」, 전 백악관 대변인 래리 스피크스의 「Speaking Out」, 재무장관과 대통령 수석보좌관을 역임했던 도널드 리건의 「For the Record」, 그리고 역시 백악관 보좌관이었던 마틴 앤더슨의 「Revolution」 등이 그것. 그런가하면 레이건의 개인비서를 거쳐 오스트리아대사로 부임했다가 낸시 레이건과의 불화로 인해 사임하고 말았던 헬렌 폰 담 여사 역시 회고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백악관을 긴장시키고 있다.

도대체 왜 이처럼 많은 책들이, 그것도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동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

“작별을 고하고 사실을 말한다”는 의미의 이른바 ‘키스 앤드 텔(Kiss and tell)’류의 책들이 출간되기 시작한 것은 멀리 앤드류 잭슨(1767~1845) 대통령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러한 책들은, 대통령과 그 주변의 인물들을 헐뜯기보다는 행정부의 정책들을 총정리해보고 그 공적을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두기 마련이었다. 훗날

세인들의 입방아에 가장 많이 올랐던 존 F. 케네디대통령의 경우만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술한 여자관계에 대해서 감히 발설하려는 백악관관리들은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따라서 레이건대통령의 실상을 ‘고자질’하는 책이 이제까지 무려 8권이나 출간됐다는 사실은, 언론의 자유를 구가하는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의외의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관리들의 윤리익식 결여” 비판도

폭로성 회고록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 역시 팽팽하게 대립돼, 관리들의 윤리익식의 상실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행정부 내부의 비행에 대해서는 결코 입을 다물 필요가 없다고 옹호하는 이들도 있다.

전문가들은 위와같은 책들이 계속 출간돼 나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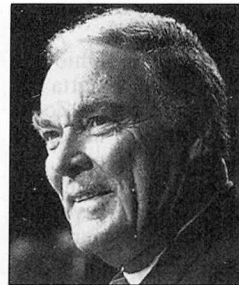
첫째, 아이젠하워 이후 8년 동안이나 대통령직에 머무른 사람은 레이건이 처음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에는 퇴임 이후에나 측근의 회고록이 나왔지만, 레이건의 경우에는 8년이라는 비교적 긴 세월이 각종 회고록의 출간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금전적인 측면을 지적할 수 있겠다. 국가 최고지도자의 정책적 결함이나 개인적 됴됨이에 대한 비난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데, 이런 책들이 일단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게 되면 출판사와 저자에게 막대한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1985년 미·소 제네바회담 당시 레이건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여 파문을 일으켰던 래리 스피크스의 경우, 회고록의 출간으로 인해 비록 증권회사인 메릴린치社의 부사장과 대변인직을 잃기는 했으나 인세로 거금 2백만달러를 챙겼다고 전해지고 있다.

세번째의 원인은 레이건이라는 인물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듀크대의 J.D.바버교수는 8권의 책을 면밀히 분석한 끝에 공통점을 찾아냈는데, 그것은 이 책들이 하나같이 국가운영에 있어 수동적이고 무관심한 대통령의 실상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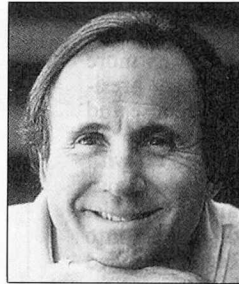
알렉산더 헤이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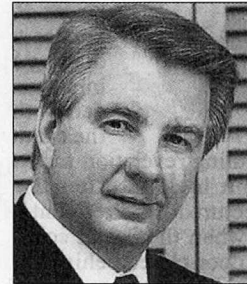
데이비드 스토크맨



패티 데이비스



마이클 레이건



래리 스피크스



도널드 리건

도널드 리건은 자신의 저서 「For the Record」에서, 레이건부부야말로 타인과 지속적으로 깊이있는 감정적 유대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이러한 평가는 이들의 친딸과 아들이 발표한 책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는데, 딸 패티 데이비스는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지, 아버지가 내 마음 속을 이해해 줄 수 있겠지라는 희망이 생겼다가도 매번 사그러들곤 했다”고 씩씩하게 적고 있다. 한편 아들 마이클은 “개인적인 일에 관해 나와 토론할 때마다 아버지는 항상 불편해하는 것 같았다”고 말하기도. 캘리포니아 주지사시절부터의 친구들 역시 레이건부부가 친절하고 유쾌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냉정한 사람들이며, 친구들로부터 진정한 충성심에 기초를 둔 견고한 우정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깨어진 '서부의 보안관' 이미지

퍼스트 레이디인 낸시 레이건의 남편에 대한 지나친 보호와 점성술 신봉을 폭로해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도널드 리건의 경우, 특히 대통령에 대한 정부관리로서의 충성심의 여부가 비판의 초점이 되었는데, 리건 자신은 “나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과연 어땠는가? 충성이란 어디까지나 상호적인 것이다”라고 당당히 반격하며 대통령부부의 이중적인 성격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또한 리건은 “휴머니티에 대한 레이건의 신념은 애타주의적 낙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무비판적이며 위험하기 짝이 없는 순진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레이건 대통령이야말로 달력에 적혀 있는 일들을 매일매일 행해나가는 것으로서 자기 임무

를 다했다고 믿는 충실한 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헤이그, 디버, 스피크스, 리건 등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담은 책들을 써낸 전직관리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자, 워싱턴 정가에서는 래리 스피크스가 ‘완벽한 예스맨’이라고 비꼬았던 조지 부시부통령만이 레이건에게 충성을 바치는 유일한 부하가 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한편 백악관과 전직관리들의 끊임없는 입씨름을 지켜 보며, 일반국민들은 대통령의 이미지와 실상 사이에 얼마나 큰 불일치가 존재하는가를 새삼 깨닫고 있다. 이제까지 레이건 대통령은 정의의 사도 서부의 보안관 같은 이미지로 미국인의 자존심을 부추키며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런 책들은 레이건 행정부의 백악관이 그동안 대외적인 이미지를 창출해내는 데 얼마나 몰두해왔는가를 폭로함으로써, “이미지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지의 파괴로 죽는다”는 진리를 되새겨보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대통령선거가 후보자의 정책이나 정치노선에 대한 냉정한 판단에 의해서보다는 후보자의 외적인 인상에 대한 선호도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현직 대통령의 정책에 관한 과학적 분석보다는 개인적인 성격이나 약점만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출판물들이 유행하는 것은 어쩌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미국내 전문가들의 지적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수많은 정치폭로물의 홍수에 시달려 온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오애리 기자